

휴가철 읽을만한 책

책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.
그들이 뽑은 '여름에 읽을 만한 책 베스트'

여름이다. 산으로, 들로, 바다로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원한 냉방기 앞에 앉아 한가로운 기분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도 제법 있을 터. 대형서점이나 사설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보며 '이번 여름에는 책 좀 읽어 볼까' 고심 하는 독자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고자 활발한 독서 활동을 펼치는 3인의 추천도서를 공유한다.

취재 송보경 기자

〈선정기준〉

첫째. 시간여유가 있을 때라면 '그래 이 정도 책은 읽어봐야겠지' - 추천필독서

둘째. '지루한 더위 살짝 비껴갈 만한 책 없을까' - 재밌고 부담 없는 책

셋째. '피서지, 오고 가는 시간 아깝지 않게 책 한권 넣어가지' - 여행의 동반재



신나는 방학이에요. 아이들에게 이 책 추천해요.

오혜자 (초롱이네도서관 관장)

청주에서 어린이작은도서관을 열고 있는 오혜자 관장. 지나간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어린이, 공평한 어린이, 동생들과 너무나 잘 노는 어린이들과 함께 있다보면 어린아이와 지낸다는 생각을 잊어버린다.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어른이나 욕심꾸러기 어른이나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어른들이 많은 세상에 '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냐'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.

⇒ 꼭 읽어보길 권하는 책은...

《고양이》(현덕 글, 이형진 그림 | 길벗어린이)

고양이가 나오지 않고 고양이 흉내를 내는 아이들이 나옵니다. 우연히 시작한 놀이에 푹 빠져서 아예 고양이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. 1900년대 초반의 어려운 시절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어린이들의 놀이 모습이 천연덕스럽고 자유롭습니다.

《난쟁이 코》(빌헤름 하우프 글, 리즈베스 초베르거 그림 | 마루벌)

마법과 노파와 저주가 등장하는 으스스한 분위기와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그림이 어우러진 그림책. 아리비안나이트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갖고 있어 이야기 분량이 꽤 많은데도 신비로운 분위기에 빨려 들어가 단숨에 끝까지 읽게 됩니다. 그림이 더욱 매력적인 책입니다.

⇒ 집중하기 어려운 어린이. 이런책 참 즐거워요.

《넉 점 반》(윤석중 시, 이영경 그림 | 창비)

아이에게 시간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세상입니다. 우리가 시간을 멈추게도 아주 빨리 가게도 할 수 없다면 아이의 세계를 벗어났다고 해야겠지요. 오후 네시 반의 여유롭고 따사로운 햇살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눈부십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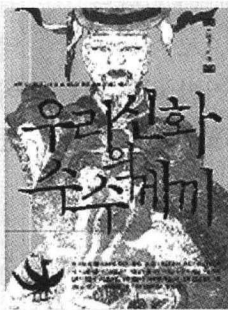
《줄줄이 펜 호랑이》(권문희 글, 그림 | 사계절)

어른한테 게으르다고 혼이 난 아이가 옆에 있다면 함께 이 책을 읽어보세요. 아니 너무 게으르다고 핀잔을 듣는 어른도 읽어 보세요.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상상만으로도 통쾌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.

《1111마리의 벼룩과 고양이》

(난부 가즈야 글, 다시마 세이조 그림 | 호리원)

아주 착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처럼 조금 착한 사람들은 가끔 고양이 호루스가 겪은 악몽 같은 일에 시달리기도 합니다. 아이들은 이



⇒ 관장님은 올 여름 어떤 책 읽으실 건데요?

"우리 옛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조금씩 접해 보았던 인간 세상에 섞여 살던 신들의 매력에 끌려 《살아있는 우리신화》《우리신화의 수수께끼》를 사두었습니다. 이번 여름에는 우리 신화의 세계로 먼 여행을 다녀오려 합니다."

책의 제목을 '십일십일 마리의 벼룩과 고양이'라고 읽습니다. 천 백십일은 꼬마들에게 너무 큰 숫자인가 봅니다.

⇒ 피서지에 간다면 여행과 모험이야기가 좋겠죠?

《헨리는 피츠버그까지 걸어서 가요》

(D.B. 존슨 글, 그림 | 달리)

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여행이라고 이야기 해 본다면 '여행'에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담기게 됩니다. 여러 여행의 다양한 방식을 살아보고 모두가 정말 멋진 여행이었다고 외치며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《나비 날다》(스테퍼니 S. 톨런 지음 | 동산사)

이왕 집을 떠나 캠프나 계절학교에 왔다면 온 몸을 던져 크게 살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실패를 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. 어른도 경험이 부족하면 별 일 아닌 것에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.

《모네의 정원에서》

(크리스티나 비외르크 글, 레나 안데르손 그림 | 미래사)

여행지에서 연못가의 깃털과 기차표와 입장권, 엽서들을 모아옵니다. 어떤 공예가는 여행의 기억이 담긴 조각들과 나무열매들을 하나씩 매달아 모빌을 만듭니다.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여행이 기분 좋게 흔들립니다.

동료 대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



노주완(사이월드 북 클럽 '르네상스' 대표, www.100bookclub.com)

현재 대학 4년생. 북클럽 '르네상스'는 개설 10개월만에 5천명 회원 돌파.

정기적으로 100여명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'저자 초청 북 세미나' '강연회' 등을 개최하며, 어려운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해주는 '독서교육 봉사활동 (Book Messenger)', '독서수칙 정하기', '도전 100권' 등 다양한 클럽이벤트도 벌이고 있다. "요새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독서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. 많이 읽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들의 편차가 크죠. 책을 톼툼이 읽는 학생들도 깊이 생각 할 수 있는 책을 기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."

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들의 편차가 크죠. 책을 톼툼이 읽는 학생들도 깊이 생각 할 수 있는 책을 기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."

⇒ 여름방학, 독서계획 이렇게

방학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하루 한 권씩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'테마별' 독서를 즐겨하는 편. '경제', '자연과학', '사회학' 등 테마를 정해서 관련 도서를 한꺼번에 5권정도 읽는 것이죠. 최근엔 '저자'를 테마로 '피터 드러커'가 쓴 책을 읽는 중입니다. 이외 <분할 독서법> <강의 독서법>을 활용한 책읽기를 소개합니다

*<분할 독서법>: 책을 몇 개의 부분(챕터 별 혹은 기승전결 등의 맥락화된 구조로) 나누어 부분별로 책을 읽고, 내용을 정리하면서 분석을 하는 독서법.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하게 되고 새로운 독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.

*<강의 독서법>: 독서를 한 후에 책의 주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1시간 분량의 강의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. 깊이있고 재미있는 독서를 할 수 있다.

⇒ 대학생, 이 책 이라면 한번쯤 일독 하길..

《한국속의 세계》(정수일/ 창비)

세계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기존의 일반적인 도서와는 달리 한국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는 책.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, 세계 속에서 성장할 한국인으로서의 비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.

《지식인의 책무》(노암 촘스키 / 황소걸음)

냉전 종식 이후, 그리고 동티모르 사건을 빚대어 지식인의 이중적인 잣대를 비판하며 '지식인의 책무'가 무엇인지 역설하고 있다. 지식인, 나아가 지성인으로 성장할 대학생들이 자신의 가치와 미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해 꼭 읽어보아야 할 책.

《세계는 평평하다》(토머스 프리드먼/ 창해)

오늘날과 미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계화의 본질을 잘 조망해 주고 있는 책.

21세기, 세계화의 여명과 내용을 보며 주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준다.

앞으로 보다 높아지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뛰어들 대학생들이 꼭 읽어보아야 할 책.



인요한의 한국 사랑을 담은 책. 인간적인 한국의 모습을 명과 암으로 다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준다.

《On the Road: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》(박준/ 넥스스Books)

전 세계 장기배낭여행자들의 솔직하고 사실적이며 흥미진진한 여행기.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게끔 설렘과 용기를 주기도 하는 매력적인 책이다.

⇒ 방학, 즐겁게 읽고 독서 습관도 기르자

《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》(인요한/ 생각의나무)

한국과 정을 주고받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

《괴짜 과학자 로버트 매튜스의 기상천외 과학대전》

(로버트 매튜스/ 갤리온)

생활 속의 과학 이야기와 함께, 잘못 알려진 과학 상식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책이다. 대학생이라면 이 정도 과학은 알아야겠지?

⇒ 여행기방에 넣어가요

《디셉션 포인트》(덴 브라운/ 대교베텔스만)

놀라운 과학적 발견과 이를 둘러싼 충격적인 정치 음모를 박진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책. 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낼 긴장감과 즐거움을 전해준다.

《주몽》(홍석주/황금나침반)

빠어난 상상력과 탄탄한 서사, 섬세한 문장, 갖가지 극적 요소로 피서지에서 손을 놓지 않고 읽을 흥미진진한 소설이다.

《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》(파커 J.파머 / 한문화)

삶이 그저 지나치는 듯 느껴질 때, 어디로 가야할지 알 수 없어 방황하는 사람을 위한 인생지침서. 방학을 맞아, 집에서 혹은 피서지에서 잠시 흘러온 대학생활을 생각하며,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.

《유쾌한 시간관리 노트》(나카이 다카요시 / 고수)

바쁜 것 같은데, 무언가 한 것은 없는 것 같은 이들이 꼭 읽어보아야 한다. 특히, 대학생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'시간관리'를 이번 방학에 배워보도록 하자.



직장인들의 황금휴가, 책과 함께

북코치 권윤구 씨(북카페(www.bookcoach.co.kr) 주인장, 네이버 '오늘의 책' 칼럼니스트)

좋은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글쓰기, 방송진행, 북코칭을 병행하고 있음.

⇒ 북코치? 기존의 리더십스킬이나 상담스킬로 활용되어온 코칭 스킬을 활용하여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적합한 도서를 추천한다.

⇒ 북코치의 여름독서 계획은? 장편, 시리즈에 도전하는 계획 (성경, 삼국지, 총서 등), 한 주제에 대한 집중 탐구 계획 (미학, 종교 등), 이미 읽었던 책들 중에서 베스트를 골라 다시 읽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.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생각입니다."

⇒ 추천도서

《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》

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| 역사비평사

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논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반박하고 있는 책. 대일문제에 있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쉬운 한국인들이 오히려 꼼꼼히 읽어두어야 한다.

《하류사회 - 새로운 계층집단의 출현》

(미우라 아츠시 지음|씨앗을뿌리는사람)

경제에서나 문화에서나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의욕이 사라진 젊은 세대, 즉 하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. 읽어보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.

⇒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

《암호 이야기 - 역사 속에 숨겨진 코드》

(박영수 지음|북로드)

다빈치 코드나 설록 홈즈같은 추리소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지적인 즐거움에서 암호를 빼놓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.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암호의 궤적을 추적하다보면 앞으로 머리 쓰는 영화나 소설이 기다려질 것이다.

《뇌의 기막힌 발견 - 머릿속으로 뛰어드는 매혹적인 심리 미스터리》

(스티븐 주안 지음|네모북스)

의학의 발전은 늑대인간, 뱀파이어, 악령빙의 등도 설명하려는 자 신감을 갖게 되었다. 뇌의 기능에 대해 놀라움도 크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기이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.

《못된 사원 김대리의 회사 100배 활용법》

(나카지마 다카시 지음|랜덤하우스중앙)

회사와 사원의 발칙한 윈윈전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. 회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도 크고 회사도 키워보겠다는 못된 사원의 자기계발노하우.

⇒ 피서지에서도 갖고 갈 수 있는 책(계절과 휴가를 고려한)

《세상을 다르게 보는 55가지 방법》

(최병광 지음|지식나루)

휴가라는 충전의 시간은 소진된 걸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발전된 것으로 채우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. 명카피라이터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55가지 방법.

《최고의 선물 -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》(여훈 지음|스마트비즈니스)

기발하고 발칙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다양한 광고이미지를 통해 성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본다. 일단 사진 많아 부담없고, 다시 힘을 내자는 문장도 맘에 든다.

《부자사전 1》(허영만 지음|위즈덤하우스)

'한국의 부자들'을 허영만 화백이 재해석한 또 하나의 수작이다. 부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작의 메시지에 허영만 화백의 인생철학을 담았다. **추천**



⇒ 추천도서

《마음》(이명돈 (지은이) | 예담)

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꼼꼼한 자료조사와 눈높이 해설로 증명한 수작이다.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.